

광주·전남 빈곤층 비율 전국 최고

■ 참여자치 '2006 양극화 실태 보고서'

열악한 산업구조와 재정자립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은 빈곤·노동·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복지 5대 분야에서 여전히 타 지역보다 높은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이 최근 작성한 '2006 사회양극화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각각 광역시, 도 단위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비율, 건강보험료 체납자 비율 등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빈곤을 대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05년말 기준)은 전남이 전국 평균(2.9%)보다 배 이상 높은 6.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광주는 3.8%로 7개 광역시 중 최고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울산, 경기도는 광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 1.6%, 1.8% 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상 빈곤층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준빈곤층)은 광주가 13만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빈곤인구의 상당수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를 당하거나 단전단수의 불편마저 감수하고 있다.

■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	1.7	3.2	3.2	2.3	3.8	2.8	1.6	1.8	3.9	3.7	4.1	5.9	6.7	4.6	3.2	3.7

기초생활수급자 각각 3.8%, 6.7%

광주 차상위계층 13만명 달해

소년소녀가장·건보료 체납도 최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임대료 체납 비율을 보면 ▲광주가 39.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22.7%로 9개 도 단위 가운데 2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빈곤은 개선 보다는 지속화되는 경향이 강해 광주의 경우 10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무려 250가구(서울 94가구, 부산 1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5년 이상 수급자 가구가 4만9천316가구로 도 단위 가운데 으뜸이었다. 특히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5만142가구)들의 교육대상자녀(0세~19세) 보육 비율은 37.8%(1만8천929명)나 가장 높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도 타 지역 보다 월등해 전

남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은 861명으로 1위였으며, 광주도 391명으로 광역시에서 가장 많을 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 보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지출만은 오히려 많았다.

광주는 교육비 중 월평균 사교육비 비율이 52.1%로 서울(59.4%)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남도 48.9%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교육비 지출은 광주지역내에서도 학부모 학력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 월평균 교육비의 경우 초졸이하는 25만5천원이지만 대졸이상은 33만2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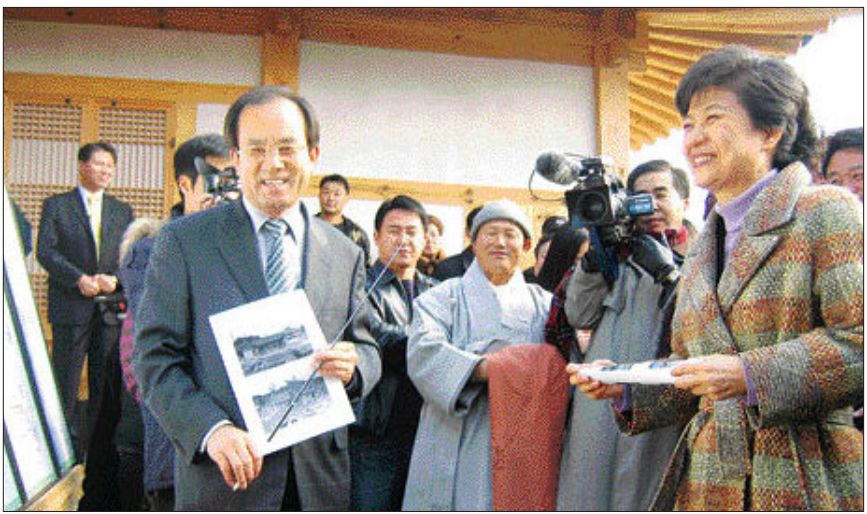
이 같은 학력에 따른 광주지역 내 양극화는 주거형태에서도 동일했다.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졸 이상이 33.5%로 가장 많았고, 고졸 15.2%, 중·초졸 11.2% 등의 순이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 복지 분야에서 하위권을 뽐냈으며, 지역내에서도 학력에 따라 주거형태나 교육비 지출액이 차등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군부대 찾은 추, 외가 찾은 차



21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육군 백골부대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병사들과 축구게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충북 옥천의 어머니 생가 마당서 복원상황을 보고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개편 '제3 지대론' 술술

'선진화 대회' 여야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 참석 촉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아닌, '제3 지대'를 목표로 한 정계개편론이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

'전진코리아 준비모임'은 21일 오후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대회'를 열고 중도개혁 세력 중심의 '전진코리아' 창립을 제안했다.

이 모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분류와는 다른 '신 386' 단체 6개가 연합한 것으로, '제3지대 정계개편'과 '선진화', '반 수구 및 낡은 진보'를 가치로 내걸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고진화 의원 등은 모두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향후 모임과의 관계설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면서도 이념성향이 당 주류와는 차별성이 있고 자질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저평가주'란 인식때문에 '여당 대선후보 영입'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제3지대 정계개편과 관련해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대회를 계기로 비슷한 중도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제3지대 정계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중도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의 반응을 보였다. 손 전 지사측은 "한나라당의 외연확대 차원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면 "정치인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의 주(主)가 아니라 객(客)"이라고 해명했다. 손 전 지사도 이날 격려사에서 "저의 열원은 김효석 같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분, 김부겸 같은 개혁적인 분들을 한나라당에 모셔와서 통합하고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효석 의원은 토론에서 "좌우 극단적 세력들이 나서 이념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개혁적, 중도통합적 세력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鄭 "정치 안한다 단언 할 수 없다"



우리당 정운찬 카드 급부상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가 부재상태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운찬(사진) 전 서울대 총장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범여권후보 가운데 선두주자적인 고건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껏 정치권 입문에 부정적이었던 정 전 총장이 최근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미묘한 입장변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정운찬 카드'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의 진로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도 '정운찬 카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선 고 전 총리뿐 아니라 정 전 총장과 같은 흥행성있는 외부인사가 영입돼 경선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운찬 카드'에 대한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의 전략적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신당파·사수파 모두 환영

"개혁 이미지 대선 경쟁력"

당내 전략통인 민병두 의원은 21일 "정 전 총장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시대의 후예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비해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범여권의 차기대권주자 가운데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쏠린다. 다만 민 의원은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의장의 입장을 감안한 듯 "정 전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과 김 의장 측도 정 전 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 '반(反) 한나라당 전진'의 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통합신당파는 정 전 총장과 같은 유력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먼저 통합신당이 창당돼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신당파 핵심의원들은 "정 전 총장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일 텐데 우리당에 입당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정 전 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통합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사수파는 정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개혁적인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고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새마을운동을 칭송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등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후보로는 정 전 총장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게임 배리 수사 정동채의원 소환될 듯

사행성 게임 배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급명간 참모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게임 및 상품권 정책 입안 당시 장·차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인규 3차장검사는 21일 "아직 배 전 차관 등의 개인 배리가 드러난 것은 없으며 본인의 계좌 등도 추적하지 않고 있다. 상품권 정책 등

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2년 2월 처음 도입된 상품권 제도도 2004년 12월 인종제로, 또 작년 8월 지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에 있던 문화부 최고위급 관리들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바다이야기' 등 성인을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결론 짓고 이들 3명의 전·차관을 포함, 모두 3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알바림약통

- 카탈라 점안액**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 신도콜 류스안연액**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 비어볼 점안액**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안과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고객지원 전화: 090-022-0200 (주선: 4선) 상담부: 02-388-1111

국제약품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열매의 씨앗이, 소원이, 꿈은, 사랑과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